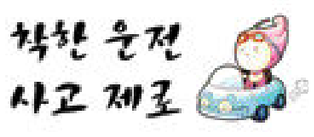
나·가족·타인 모두에 치명적 술 마시면 무조건 운전 말아야



⑦ 운전 전 음주는 '독'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만 매년 사고 발생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단속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일부 서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단속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총 5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0명이 사망하고 95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교통사고 건수(363건)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67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과는 달리 올 상반기 음주운전에 단속된 차량은 3천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293건)보다 28.8% 줄었다.

광주 음주사고 매년 급증

올 512건 발생·10명 사망

끔찍한 범죄 이어지기도

특히 운전이 생계유지 수단인 일부 서민들은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음주운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6월 14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모(48)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M마트 앞길에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J(10)군을 친 뒤 차에 태워 사고현장에서 20㎞ 떨어진 담양군 남면 인근 저수지로 끌고 가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될까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는 북구 운암동에 사는 김모(28)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동생(28)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자 생계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의 가족은 물론 무고한 타인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숲 법무 광주 '교통사고 줄이기' 참관

30일 법질서확립대회 참석

김경한 법무부장관(사진)은 30일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운동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을 방문해 박영렬 지검장으로부터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 등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김 장관은 지역 내 주요 기관장과 지역 원로,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 등과 오찬을 한 뒤 오후 2시 첨단산단 내 대창운수에서 열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바른운전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시내버스에 전조등켜기' 스티커를 차량에 직접 부착하며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이날 광주 첨단고에서 열리는 시민운동본부와 시교육청간 '교통선진문화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참관한 뒤 항공편으로 상경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불황에도… 조기유학 초·중생 400명 넘어서

광주·전남, 대부분 관련법 어긋난 미인정 유학

광주·전남에서 지난해 조기 유학을 떠난 초·중학생이 400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침체 여파에도 조기유학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미국과 뉴질랜드 등으로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은 초등생 292명, 중학생 144명 등 모두 43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초등생 161명, 중학생 53명 등 214명으로 2007년보다 22명 줄었으나 전남은 초등생 131명, 중학생 91명 등 222명으로 31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유학생 대부분은 관련법에 어긋난 미인정 유학이며 예체능계 우수 학생으로 지역 교육청의 유학자격 심의회에서 인정을 받은 유학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국외유학 규정은 자비 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으로 제한해 사실상 초등생이나 중학생의 자비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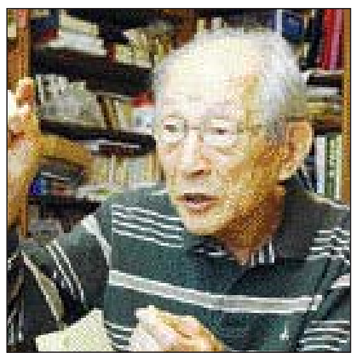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생의 자비 유학을 금지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자녀 조기유학)의지가 강할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조기 유학의 폐해도 많은 만큼 조기유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고교생 유학생은 광주 119명, 전남 37명 등 156명으로 집계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병원 소아과 과장이던 1985년 2월, 어린이 감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고(故) 손철 교수. 아래는 지난 2006년 10월 광주일보 연재물 '그사람 지금은'에 초대돼 인터뷰하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소아과 대부 '영원한 청년' 손철 전남대명예교수 별세

국내 '소아과 전문의 2호'로 지역 소아과학의 개척자인 전남대 의과대학 손철(孫澈) 명예교수가 숙환으로 27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손 교수는 1920년 황해도 서흥에서 출생했으며, 관사였던 부친의 변호사 개업으로 장흥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장흥 소학교를 거쳐 경기중, 중국 청도의전을 졸업한 뒤 소아과 교실에 근무하다 광복 당시 광복군 제3지대 군의처장으로 귀국했다.

1946년 11월부터 전남의대 전신인 광주의대 강사로 재직하기 시작해 전남의대 소아과장, 대한소아과학회장, 전남의대 간호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6·25전쟁중에는 중위로 임관돼 복무했으며, 포로 진료와 교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이어 베트남전쟁시에는 사이공 민두크의대에서 진료와 교육을 병행했다.

한국 소아과 전문의 2호
뇌염 퇴치 등 큰 공헌
음악·문학에도 깊은 조예
후학들에게 시신 기증도

손 교수는 재직 중 전남지역 어린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뇌염과 파상풍 퇴치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모유수유 권장 등 소아성장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손 교수는 수필가, 음악애호가, 낚시인 등으로 이름을 날려 팔방미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는 1951년 조선대 교수였던 시인 김현승 등과 함께 동인지 '신문학'을 발행했으며, 수필가로서 전남문인협회장으로도 활동했다. 학창시절부터 수많은 저술활동을 펼쳤으며, 대표 저서로는 '哲(철) 1·2·3'이 있다.

"의사는 베푸는 직업"이라며 1985년 정년 퇴임 이후 개업을 하지 않았던 손 교수는 운명하면서까지 자신의 시신을 전남의대 해부학교실에 기증했다. 그의 시신은 처리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딸 영신씨가 있으며, 장례는 전남의대 소아과교실장(장의위원장 황태주 교수)으로 치러진다. 분향소는 전남대병원(제1분향소 062-220-6981)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9시(전남의대 덕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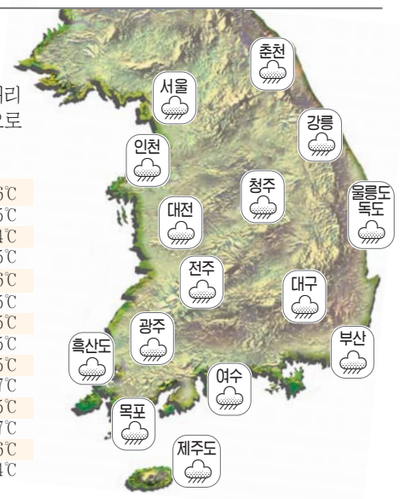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5시 38분 해짐 19시 39분 달뜸 12시 21분 달짐 23시 07분

장맛비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2/26℃
목 포	흐리고 비	22/25℃
여 수	흐리고 비	21/24℃
완 도	흐리고 비	21/25℃
구 례	흐리고 비	21/26℃
해 남	흐리고 비	22/25℃
장 흥	흐리고 비	22/25℃
고 흥	흐리고 비	21/25℃
순 천	흐리고 비	21/25℃
영 광	흐리고 비	21/27℃
진 도	흐리고 비	22/25℃
전 주	흐리고 비	21/27℃
남 원	흐리고 비	20/26℃
흑산도	흐리고 비	21/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먼바다	동~남동	2.0~3.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동~남동	2.0~3.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보통

	밀물	썰물
목포	06:27 19:10	11:37 --:--
여수	00:46 13:33	06:59 19: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수)	30(목)	31(금)	8/1(토)	2(일)	3(월)
날 씨						
최저/최고	21/28	21/30	21/30	21/30	22/31	21/31

목포대생 등 2명 호주서 실종

축하 파티 뒤 사라져

한국에서 호주로 일하러 간 목포대 재학생 등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2명이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시드니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리피스 인근의 한 오렌지농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김모(25·목포대 4년)씨와 안모(여·26)씨가 지난 22일 새벽 이후 자취를 감춘 채 이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김씨 등은 이날 6명의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날 이곳으로 처음으로 일하러 온 안씨를 축하하기 위해 밤늦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

김씨 등은 사고 당일 새벽 3시께 술자리를 떠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다.

총영사관과 경찰은 이들이 지갑을 포함해 소지품을 숙소에 그대로 둔 채 사라졌고, 휴대전화도 끊긴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발생 후 현장 탐문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날부터 공개수색으로 전환했다.

한편 김씨 등이 실종된 22일에는 투신 자살과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사망 등으로 인해 한국인 4명 숨지거나 실종됐다. /연합뉴스

어린이·청소년 희망캠프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북구에 따르면 28일부터 2박3일씩 두 차례에 걸쳐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봉사 및 지역사회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다음달 3일과 4일에는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를 직접 점검해 보는 식품안전 체험교실을 연다.

다음달 8일에는 폭포 압해도에서 '드림 스타트 희망나누기' 행사를, 11일과 18일에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전통공예문화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음식만들기와 도자기 체험교실을 연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